

투자 의견(신규)	매수
목표주가(신규)	119,000원
현재주가(26/10/29)	82,300원
상승여력	44.6%

영업이익(26F, 십억원)	789
Consensus 영업이익(26F, 십억원)	778
EPS 성장률(26F, %)	463.1
MKT EPS 성장률(26F, %)	278.0
P/E(26F, x)	8.0
MKT P/E(26F, x)	5.4
KOSPI	5,937.66
시가총액(십억원)	2,328
발행주식수(백만주)	28
유동주식비율(%)	40.9
외국인 보유비중(%)	14.9
베타(12M) 일간수익률	0.45
52주 최저가(원)	64,100
52주 최고가(원)	203,500

(%)	1M	6M	12M
절대주가	-19.3	-38.7	24.1
상대주가	-6.6	-30.9	-14.7



[유통]
김나미
nami.kim@miraeasset.com

롯데쇼핑

백화점이 끌고, 비백화점의 상쇄가 줄어든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19,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19,000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1) 백화점의 국내 패션 매출 회복과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2) 홈플러스 영업 축소에 따른 할인점의 고객 유입, 3) 홈쇼핑의 고마진 편성과 비용 효율 개선이 이익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목표주가는 2Q26 BPS 540,925원에 흑자 전환이 확인된 4Q25 실적 발표 이후의 평균 P/B인 목표 PBR 0.22배를 적용했다.

백화점: 패션 회복과 외국인 유입이 이익을 확대한다

백화점은 매출 비중이 큰 국내 패션의 회복에 외국인 유입이 더해지며 이익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매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국내 패션은 2Q26 12% 성장했고, 외국인 매출은 1Q26 +92%(비중 5.2%), 2Q26 +108%(7.1%)로 고성장을 이어갔다. 명동 본점(외국인 비중 29%)과 부산(9.4%) 등 핵심 점포가 특히 인바운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환율 효과뿐 아니라 K-패션과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에 기반한 수요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인점: 경쟁 완화가 기존 점포의 수익성을 높인다

할인점은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반사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 2Q26 기존점 성장률은 +0.7%였지만, 홈플러스 인접 점포는 +4~5% 성장한 반면 비경쟁 점포는 -2%를 기록하며 수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입 고객이 정착하면 기존 점포에서 추가 매출을 확보해 성장률 정상화 이후에도 높아진 매출 수준과 고정비 흡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3분기 흑자 전환 전망을 반영해 할인점 영업이익이 2025년 70억원 적자에서 2026년 201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한다.

홈쇼핑: 편성 재편이 이익 체력을 높인다

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뷰티 중심의 편성과 비용 관리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2Q26 순매출은 3.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2.7%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5.3%에서 8.3%로 올랐다. 2026년 영업이익은 771억원으로 321억원 증가해 연결 증익의 약 13%를 담당할 전망이다. 하반기는 308억원(3분기 150억원·4분기 158억원)으로, 상반기 9.8% 수익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않고 전년 대비 이익률 개선폭 축소를 반영했다. 롯데온의 광고 수익 확대와 손실 축소는 추가 개선 요인이다.

결산기 (12월)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십억원)	13,987	13,738	14,323	14,827	15,268
영업이익 (십억원)	473	547	789	875	966
영업이익률 (%)	3.4	4.0	5.5	5.9	6.3
순이익 (십억원)	-968	52	290	340	409
EPS (원)	-34,219	1,822	10,262	12,017	14,454
ROE (%)	-7.7	0.3	1.9	2.2	2.6
P/E (배)	-	39.8	8.0	6.8	5.7
P/B (배)	0.1	0.1	0.2	0.1	0.1
배당수익률 (%)	7.0	5.5	5.6	5.6	5.6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Valuation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19,000원을 제시한다. 1) 연결 영업이익의 85%(2026F 기준)를 만드는 백화점이 외국인·내수 동반 호조로 두 자릿수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하고, 2) 할인점이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반사수혜로 2025년 70억원 적자에서 2026년 201억원 흑자로 전환하며, 3) 2026년 증익의 31%가 비백화점(기타·연결조정 포함)에서 발생하며 다각화가 상쇄에서 기여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목표주가는 2Q26 BPS 540,925원에 PBR 0.22배를 적용했다.

표 50. Valuation Table

항목	값	비고
2Q26 지배주주지분 (억원)	153,021	2026.6월 말 연결 기준
BPS (원)	540,925	지배주주지분 ÷ 28,289천주
목표 PBR (배)	0.22	4Q25 실적 발표(2026.2.6) 이후 월말 주가(2~9월 말, 10월은 10.26 종가) ÷ 2Q26 BPS 평균
목표주가 (원)	119,000	BPS × 목표 PBR
현재주가 (원)	81,400	2026.10.26 종가
현재 PBR (배)	0.15	
상승여력 (%)	46.2	
(참고) 2026E EPS (원)	10,262	지배주주순이익 2,903억원 기준, P/E 7.9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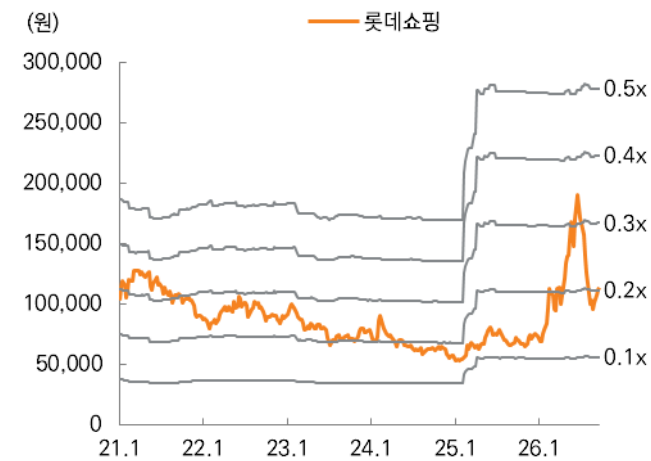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P/E보다 PBR이 적합하다. 리스 포함 순차입금이 약 12.0조원(2011년 3.1조원에서 2021년 이후 투자 확대에 약 네 배 증가)에 이르고 재평가자산 비중이 커, EV 기준 배수는 자본구조 가정에 따라 지분가치가 크게 흔들려 피어 비교 가능성이 낮다.

P/E 역시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자산재평가와 손상차손으로 순이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순이익은 2024년 9,680억원 적자에서 2025년 흑자로 전환했고 2026년에는 2,903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단년도 EPS는 영업이익의 방향보다 영업외 손익과 자산 관련 손익에 크게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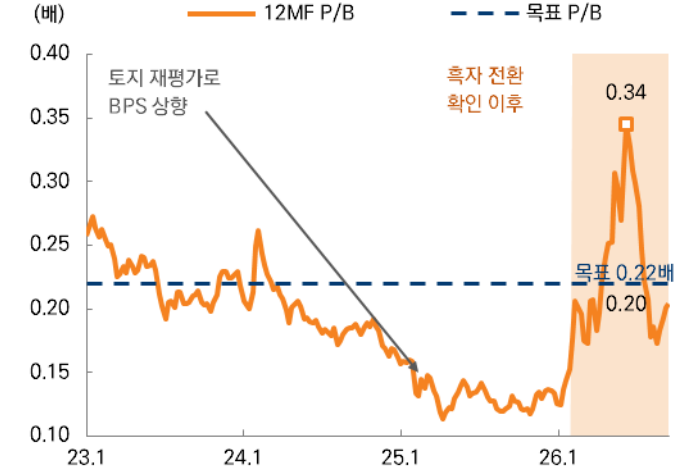
동사는 재평가잉여금 7.7조원으로 순자산이 크다. 목표주가 119,000원은 2Q26 지배주주지분 15조 3,021억원 기준 BPS(540,925원, 28,289천주)에 PBR 0.22배를 적용하였다. 0.22배는 4Q25 실적 발표(2월 6일) 이후 평가 기준일(10월 26일)까지의 월말 주가를 2Q26 BPS로 나눈 평균이다. 분기 영업이익은 2Q25(-28%)와 3Q25(-16%)에 줄다가 4Q25 +55%, 1Q26 +71%, 2Q26 +121%로 돌아섰고, 지배주주순이익은 2025년 연간 흑자로 전환했다. 토지 재평가로 바뀐 자산 기준은 BPS에 반영하고, 배수는 실적 회복이 확인된 이후의 평가 수준을 참고했다. 백화점과 비백화점의 이익 개선이 이어지고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해 해당 수준의 회복을 가정했다.

그림 112. 롯데쇼핑 12MF P/B 밴드



주: 블룸버그 컨센서스 12개월 선행 BPS 기준, 주간. 2024년 말 토지 재평가로 BPS 상향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3. 롯데쇼핑 12MF P/B와 목표 0.22배



주: 블룸버그 컨센서스 12개월 선행 BPS 기준, 주간.
음영은 4Q25 실적 발표(2026.2.6) 이후.
목표 0.22배는 월말 주가(2~9월 말, 10.26 종가) ÷ 2Q26 BPS 평균(0.221배)을 반올림한 값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PBR 평가의 핵심은 자산의 이익 창출력이다. 당사는 재평가가 반영된 토지·건물 등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장부가치 대비 낮은 주가만으로 투자 매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백화점에서는 기존점 매출 증가가 이익률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홈쇼핑은 상품 구성과 비용 관리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경우 낮은 자산 수익성을 근거로 적용된 할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는 백화점이 증익해도 나머지 사업부의 적자가 이를 상쇄했다. 2026년에는 연결 영업이익 증가분의 31%가 비백화점(기타·연결조정 포함)에서 발생하고 할인점과 컬처웍스가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비백화점 손익 개선은 대규모 자산 매각이나 추가 재평가 없이 기존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는 변화로, 낮은 PBR을 정당화해온 자산 수익성의 훼손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목표 PBR 0.22배는 당사의 자산 수익성 개선 전망과 부합하는 수준이다. 비백화점 사업 전체의 정상화나 대규모 자산 매각의 실현을 전제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평가 상승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국내 할인점의 흑자가 경쟁사 재개장 이후에도 연간 이익으로 유지되거나, 영업현금흐름에서 투자와 리스 지급을 충당한 이후 순차입금이 의미 있게 줄어야 한다. 2분기 말 리스 포함 순차입금은 약 11.97조원으로 여전히 큰 만큼 이익 증가의 현금 전환이 중요하다. 10월 29일 결정한 부산 센텀시티점 매각은 저수익 점포를 정리하고 핵심 점포에 투자를 집중하는 조치로, 매각 대금은 순차입금 축소에 일부 기여할 전망이다.

실적 전망

연결 순매출은 2025년 13.74조원에서 2026년 14.32조원, 2027년 14.83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과 외국인 매출 증가, 할인점의 경쟁 완화가 하이마트 등 일부 사업부의 부진을 상쇄한다. 영업이익은 2025년 5,470억원에서 2026년 7,894억원(+44.3%), 2027년 8,754억원(+10.9%)으로 늘고 영업이익률은 4.0%에서 5.5%, 5.9%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한다. 2026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4,465억원으로, 상반기 3,429억원에 이어 이익 증가가 지속되는 경로를 적용했다.

백화점 외국인 매출 비중은 2026년 7.0%, 2027년 8.8%를 적용했다. 명동 본점에서 나타난 외국인 침투율 상승이 부산 등 주요 점포로 확산되는 경로다. 내국인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비중의 상승 속도 자체는 점진적으로 가정했다.

표 51. 롯데쇼핑 연간 실적 전망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순매출액	13,738	14,323	14,827	15,268
백화점	3,339	3,612	3,833	3,995
할인점	5,471	5,696	5,841	5,965
이커머스	109	107	110	114
홈쇼핑	902	928	957	984
컬처웍스	434	501	521	537
하이마트	2,300	2,261	2,316	2,386
수퍼	1,226	1,254	1,286	1,324
기타/연결조정	(44)	(35)	(36)	(38)
영업이익	547	789	875	966
영업이익률 (%)	4.0	5.5	5.9	6.3
백화점	504	670	723	765
할인점	(7)	20	30	50
이커머스	(29)	(24)	(15)	(9)
홈쇼핑	45	77	84	91
컬처웍스	(11)	7	4	9
하이마트	10	(8)	(3)	7
수퍼	8	3	8	10
기타/연결조정	27	44	44	44
세전이익	83	478	574	691
지배주주순이익	52	290	340	409
EPS (원)	1,823	10,262	12,017	14,454

주: 2025년 영업이익은 발표 기준(연결조정 반영).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52. 롯데쇼핑 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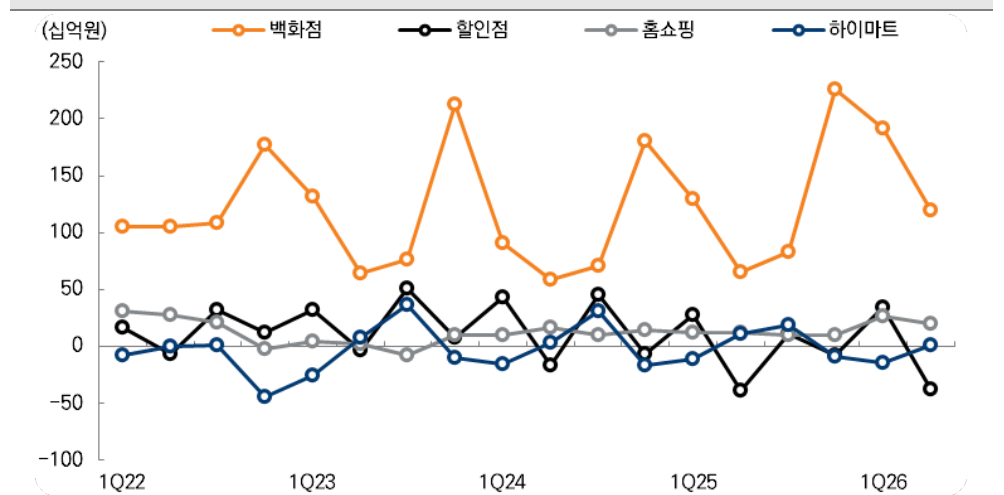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457	3,350	3,410	3,522	3,581	3,485	3,552	3,704	13,987	13,738	14,323	14,827
백화점	806	816	765	952	872	891	827	1,022	3,319	3,339	3,612	3,833
할인점	1,487	1,295	1,334	1,355	1,526	1,330	1,410	1,431	5,576	5,471	5,696	5,841
이커머스	28	27	23	32	27	26	22	31	120	109	107	110
홈쇼핑	228	231	211	232	232	239	218	239	925	902	928	957
컬처웍스	86	92	128	128	125	106	138	132	452	434	501	521
하이마트	529	594	652	524	497	591	633	540	2,357	2,300	2,261	2,316
수퍼	305	309	314	299	306	313	315	320	1,296	1,226	1,254	1,286
기타/연결조정	(13)	(14)	(16)	(1)	(3)	(11)	(10)	(11)	(58)	(44)	(35)	(36)
영업이익	148	41	131	228	253	90	159	287	473	547	789	875
영업이익률 (%)	4.3	1.2	3.8	6.5	7.1	2.6	4.5	7.7	3.4	4.0	5.5	5.9
세전이익	45	(24)	(15)	78	180	19	82	196	(1,021)	83	478	574
지배주주순이익	16	(20)	(57)	112	128	(3)	49	116	(968)	52	290	340

주: 4Q25~2025년 영업이익은 발표 기준. 4Q 세전이익은 연말 손상차손 등 기타영업외손익 포함.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백화점 6,702억원, 홈쇼핑 771억원, 할인점 201억원으로 예상한다. 백화점의 하반기 이익은 3,593억원, 홈쇼핑은 308억원, 할인점은 241억원을 반영했다. 이커머스는 연간 237억원, 하이마트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대형가전 수요 부진을 반영해 82억원의 영업손실을 추정하며 컬처웍스는 연간 65억원, 수퍼는 34억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핵심 사업의 증익과 일부 손실 사업부의 개선이 병행되지만 모든 사업부의 흑자 전환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그림 114. 롯데쇼핑 사업부별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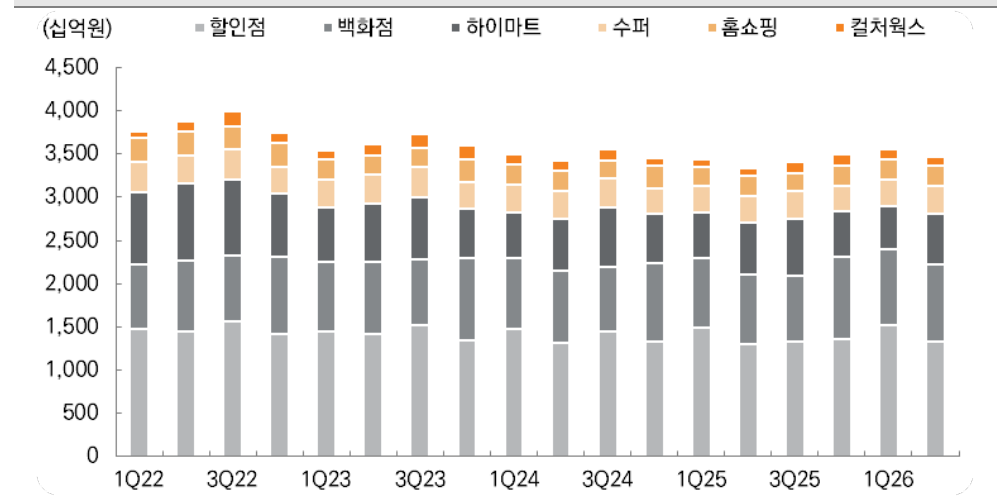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연결 영업이익 증가분 2,424억원 중 백화점이 1,660억원, 홈쇼핑이 321억원을 담당한다. 두 사업의 합산 기여는 약 82%다. 나머지는 상반기 분기 100~120억원 수준을 유지한 기타·연결조정(+169억원)과 할인점(+271억원)·컬처웍스(+171억원)·이커머스(+56억원)의 개선을 하이마트(-179억원)·수퍼(-46억원)가 상쇄한 결과다. 사업부 기준 비백화점 기여는 25%, 기타·연결조정을 포함하면 31%로 상쇄에서 기여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사업부별 회복 속도의 차이를 반영하면 연결 증익의 지속성은 백화점과 홈쇼핑의 이익 수준 유지에 우선적으로 달려 있다.

지배주주순이익은 2025년 516억원에서 2026년 2,9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영업이익 증가에 기타영업외손실 정상화(-1,793억원→-372억원)가 더해지는 경로이며, 지분법이익은 1,643억원에서 1,391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했다. 상반기 세전이익은 1,996억원, 지배주주순이익은 1,254억원이었으며, 2Q26에는 연결 순이익 146억원에도 비지배지분 귀속이 175억원에 달해 지배주주순이익이 2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이후 지배지분율은 실적(FY25 70%, 상반기 79%)에 가까운 80%를 적용했으며, 홈쇼핑(비지배 46.5%)·하이마트(34.7%)·해외 법인의 손익 배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분기마다 재점검이 필요하다. 다만 이자비용과 개발사업 손익, 연말 손상차손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연결 자회사의 이익 중 비지배지분 귀속분을 구분해야 한다. 순이익 증가율 전체를 반복 가능한 본업 성장률로 해석하기보다 영업이익과 금융·지분법손익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5. 롯데쇼핑 사업부별 매출 구성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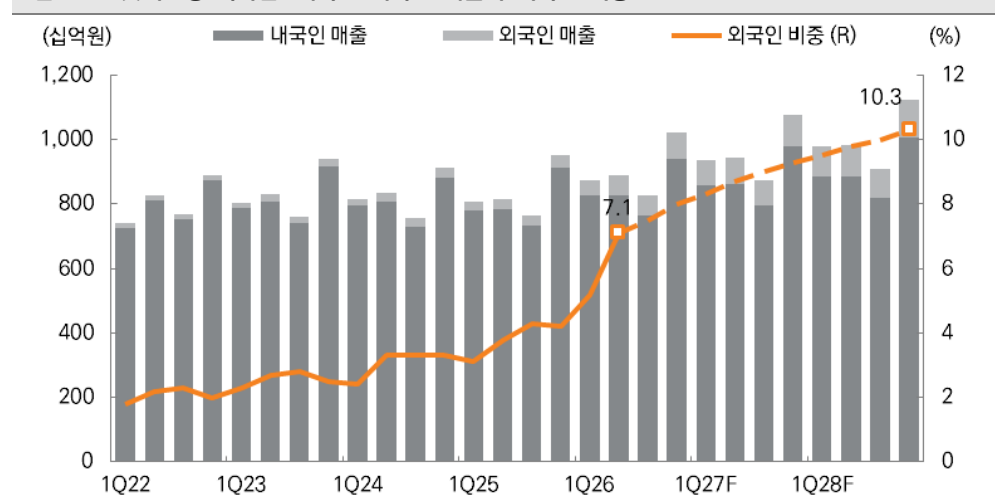
투자포인트 1. 백화점: 패션 회복과 외국인 유입이 이익을 확대한다

백화점은 외국인 매출 증가에 내국인 패션 소비 회복이 더해지며 이익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동사 백화점의 국내 패션 매출 비중은 약 45%로, 해외 패션 약 19%를 상회한다. 2분기 국내 패션 매출은 12% 증가했으며 여성 패션 16%, 남성 패션 11%, 아동·스포츠 9%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매출 비중이 큰 고마진 상품군의 판매가 회복되면서 매출총이익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요의 기반도 넓다. 2Q26 전체 기존점 매출 성장률 15%(총매출 기준) 가운데 회사 설명상 내국인 기여는 약 11%p, 외국인은 약 4%p다. 당사 모델의 내국인 순매출 증가율도 1Q26 5.8%, 2Q26 5.5%로, 외국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내수 수요도 함께 회복되는 구조다. 내국인 매출이 늘어 외국인 비중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더라도 백화점의 전체 이익 증가에는 긍정적이다.

외국인 매출은 1분기 92%, 2분기 108% 증가했고 전점 매출 비중은 5.2%에서 7.1%로 높아졌고, 7월에는 8.1%까지 확대됐다. 2분기 본점의 외국인 비중은 29%, 잠실점은 8.0%, 부산 3개점 합산은 9.4%를 기록했다. 가격 경쟁력에 더해 K-패션과 스포츠·캐주얼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동사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투어리스트 멤버십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해 10만 장을 발급했고, 중국 가오더지도와 다중덴핑에서 방문 전 광고를 집행하며 라인페이와 유니온페이 QR 결제도 도입해 핵심 점포의 고객 유입을 지원한다. 반면 중소형 지방 점포는 외국인 유입이 거의 없어, 본점에서 확인된 높은 침투를 전점 평균이 희석한다.

그림 116. 롯데쇼핑 백화점: 내국인·외국인 매출과 외국인 비중



주: 3Q26부터 당사 추정(점선)

자료: 각 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외국인 수요가 단순 환율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거는 가격과 브랜드에 있다. 회사에 따르면 환율이 1,400원 초중반만 유지돼도 한중일 중 한국의 명품과 의류 가격이 가장 낮아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고, K-패션과 콘텐츠의 위상 강화로 외국인이 소비를 확장해 자국에 없는 브랜드(알로 등 프리미엄 요가웨어)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도 한국에 우선적으로 상품과 라인업을 공급하면서 동일 브랜드를 한국에서 구매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매출 역시 특정 명품군에 집중되지 않고 복수 상품군에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비중 상승이 상품 믹스 악화로 연결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비중 상승의 속도에는 분모 효과가 작용한다. 외국인 매출이 100%씩 신장해도 백화점 매출의 93%를 차지하는 내수가 기준점 기준 약 11%p(2Q 기준점 +15% 중 내국인 기여), 순매출 기준으로도 1Q +5.8%·2Q +5.5% 성장하고 있어 비중 상승을 제약한다. 비중이 더디게 오르는 것은 외국인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내수가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당사는 백화점 외국인 비중을 2026F 7.0%, 2027F 8.8%, 2028F 9.9%로 추정했다. 외국인이 기존 내수 수요를 대체하기보다 추가 매출로 유입되는 구간에서는 기준점 성장과 고정비 레버리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표 53. 백화점의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

지표	1Q26	2Q26
기준점 매출 성장률 %	13	15
내국인 성장 기여도 %p	약 10	약 11
외국인 성장 기여도 %p	약 3	약 4
외국인 매출 비중 %	5.2	7.1

주: 기준점 성장률과 기여도는 회사 관리 총매출 기준. 외국인 비중은 회사가 제시한 전점 기준.
자료: 롯데쇼핑

매출 회복은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2분기 국내 백화점 순매출은 8,556억원으로 8.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23억원으로 77.6%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8.0%에서 13.1%로 5.1%p 상승했다. 상반기에도 순매출이 8.4%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54.8% 늘었다. 과거 점포 폐점과 인력 효율화를 거친 이후 고마진 패션을 포함한 전 상품군의 매출이 회복되면서 기존 비용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익 개선의 전제는 고마진 패션의 절대 매출 증가와 비용 증가율의 통제다. 회사는 2분기 상품 마진 구성에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션 비중 자체의 상승이나 외국인의 높은 구매 마진을 추가로 가정하기보다, 현재 상품 구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준점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반영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상반기 매출총이익이 5.5% 증가한 반면 판관비 증가는 0.8%에 그쳐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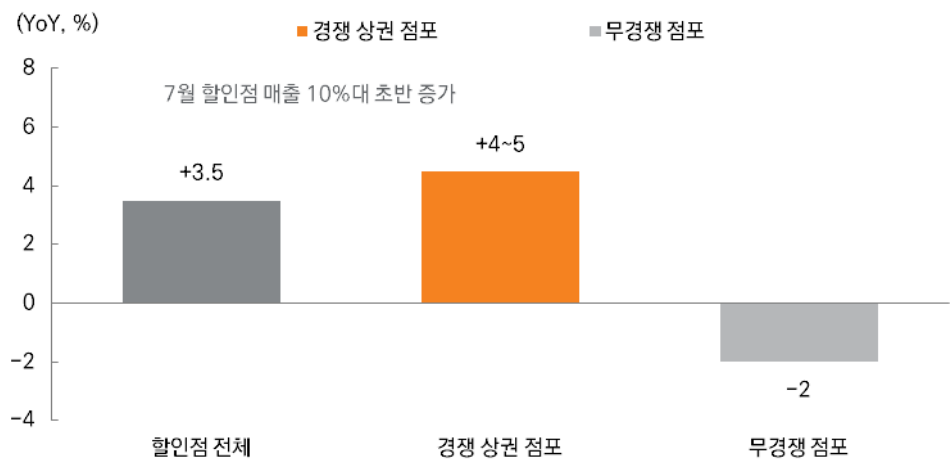
당사는 백화점 외국인 매출 비중을 2026년 7.0%, 2027년 8.8%로 추정한다. 핵심 점포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내국인 패션 소비 회복을 반영해 2026년 국내외 백화점 합산 영업이익을 6,702억원으로 예상한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1,660억원으로 연결 증익의 약 68%에 해당한다. 외국인 침투율과 패션 매출이 함께 높아지는 동안 기존 점포의 이익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포인트 2. 할인점: 경쟁 완화가 기존 점포의 수익성을 높인다

할인점은 경쟁사의 영업 축소로 유입된 고객을 기존 점포에서 확보하는 국면이다. 2분기 롯데마트 기존점 매출은 약 0.7% 증가했지만 홈플러스 경쟁 여부에 따라 실적 차이가 뚜렷했다. 홈플러스 인접·폐점 상권의 점포는 4~5% 성장한 반면 비경쟁 상권은 2% 역성장했다. 약 6~7%p의 성장률 차이는 경쟁 완화가 롯데마트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홈플러스의 영업 중단 범위가 확대되면서 격차는 하반기 들어 커지고 있다. 5월 37개점의 영업을 추가 중단하고 7월 13일 잔여 60여개점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롯데마트의 반사수혜가 확대됐고, 7월 매출도 10%대 초반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소비쿠폰에서 마트가 사용처로 제외됐던 기저효과가 반대로 작용하고, 자체 개발한 시그니처 PB가 고객 신뢰를 얻고 있다. 기존 할인점 3위 사업자였던 동사가 홈플러스 붕괴로 자연스럽게 2위로 올라서는 구간이다. 다만 잔여 67개점이 8월 13일 정식 재개장하면서 반사수혜의 일부는 되돌려질 수 있다. 재개장 이후 첫 온기 월인 9월에도 대형마트 점포당 매출은 19.3% 늘었지만, 추석 이동 효과가 섞여 있어 재개장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고 10월은 전년 추석 기저(+9.6%)로 일시 감소할 수 있다. 당사는 반사수혜를 구조적 성장이 아닌 단기 모멘텀으로 보고 FY27 할인점 영업이익을 300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림 117. 롯데마트: 홈플러스 경쟁 상권 점포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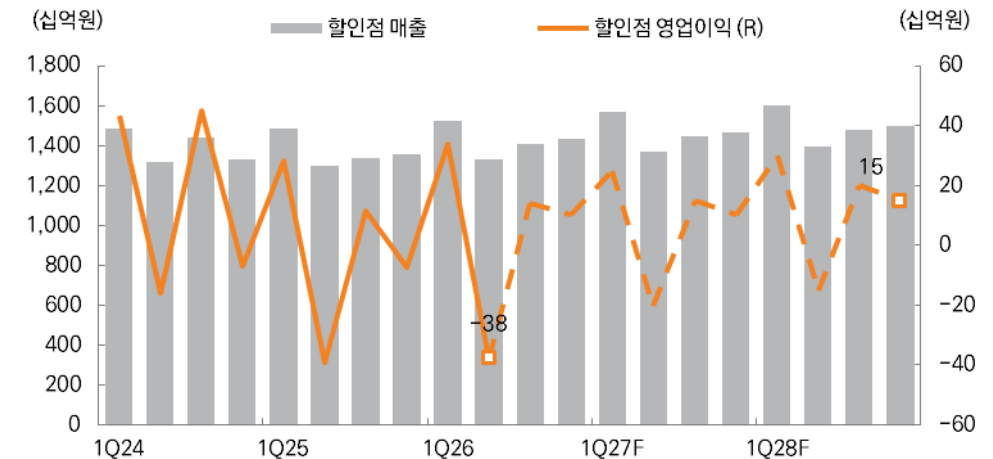


주: 할인점 전체는 2Q26. 경쟁 상권 = 홈플러스 경쟁 상권, 4~5% 범위의 중간값으로 표시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분기 말 국내 할인점은 112개점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다. 고객 유입에 따른 추가 매출을 기존 점포에서 확보하면 임차료와 설비 등 주요 고정비의 추가 부담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전된 고객이 정착할 경우 기저효과가 소멸한 이후에도 점포당 매출은 기존 수준을 상회할 수 있다. 향후 이익의 지속성은 유입 고객의 재방문과 추가 매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판촉·인건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할인점의 회복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2분기 순매출은 9,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422억원으로 58억원 축소됐다. 상반기 영업손실은 334억원으로 78억원 개선됐다. 하반기에는 경쟁 완화와 자체 상품 판매 호조가 매출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추석 수요가 반영되는 3분기에는 국내 할인점의 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그림 118. 롯데쇼핑 할인점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주: 국내의 할인점 합산. 3Q26부터 당사 추정(점선)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국내 수혜와 해외 손익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분기 베트남 할인점 영업이익은 118억원으로 37억원 증가했지만 인도네시아는 7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83억원 악화됐다. 인도네시아의 소비 위축이 베트남의 증익을 상쇄하면서 해외 할인점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46억원 감소했다. 국내 개선에도 국내외 할인점 합산 손실이 378억원에 머문 이 유다.

표 54. 국내외 할인점의 2분기 영업이익 변화

구분	2Q26 억원	전년 대비 억원
국내 할인점	-422	+58
베트남 할인점	118	+37
인도네시아 할인점	-75	-83
국내외 할인점 합산	-378	+11

주: 회사 공시 반올림 수치로 합계 및 증감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희망퇴직 비용 82억원은 마트·슈퍼 합산이며 국내 할인점에 전액 배분하지 않음.

자료: 롯데쇼핑 2Q26 IR

하반기에는 오카도 스마트센터의 초기 비용도 반영된다. 8월 7일 가동을 시작한 스마트센터는 주문과 배송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투자 감가상각과 운영비가 먼저 발생한다. 당사는 국내 고객 유입과 베트남 성장에 따른 개선분에서 인도네시아 부진과 신규 비용 부담을 차감해 2026년 할인점 합산 영업이익을 201억원으로 추정한다. 상반기 40억원 적자에서 하반기 241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경로다.

연간 이익률은 약 0.4%로 낮지만 이는 국내 수혜에 해외 부진과 초기 투자비용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2025년 70억원 적자에서 2026년 201억원 흑자로 전환하면 연결 영업이익에 271억원을 더한다. 홈플러스 상권의 고객 유지율이 높고 스마트센터 비용이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경우 국내 할인점의 추가 이익 개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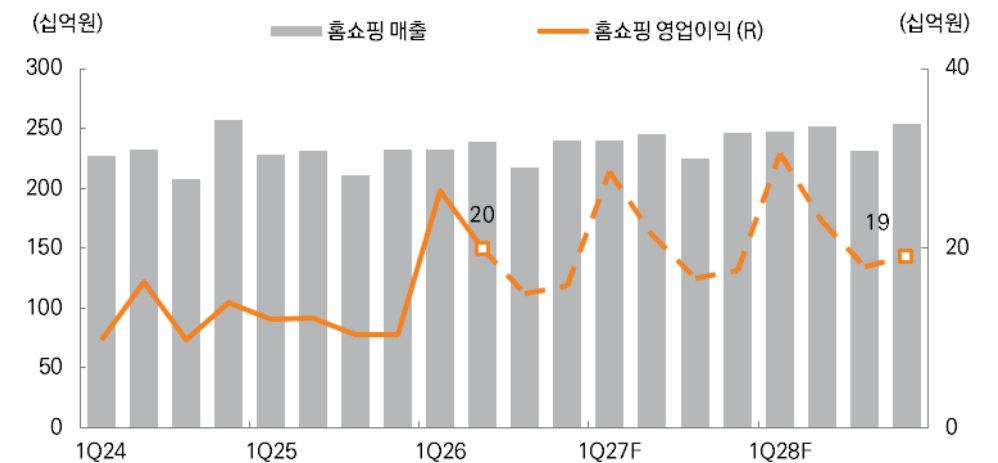
투자포인트 3. 홈쇼핑: 편성 재편이 이익 체력을 높인다

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중심의 상품 편성 재편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2분기 순매출은 2,386억원으로 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9억원으로 62.7% 늘었다. 영업이익 증가액은 77억원이며 영업이익률은 5.3%에서 8.3%로 3.1%p 상승했다. 고마진 상품의 편성을 늘려 시간당 효율을 높이고 판관비를 절감한 결과다.

이익 개선은 채널 전반의 판매 회복 없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가 영업현황에서 제시한 2분기 채널별 매출 신장률은 Live TV -8%, e커머스 -3%, T커머스 -6%다. 판매 규모가 줄어드는 환경에서도 순매출과 이익이 함께 증가했다는 점은 상품 구성과 비용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고마진 편성의 판매 효율이 유지되면 낮은 외형 성장률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90.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9.8%를 기록했다. 당사는 연간 영업이익을 771억원으로 추정한다. 하반기 영업이익은 308억원(3분기 150억원, 4분기 158억원)으로 전년 하반기 207억원 대비 48.9% 증가하지만, 절대 이익은 올해 상반기 463억원보다 155억원 낮은 수준이다.

그림 119. 롯데쇼핑 홈쇼핑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주: 3Q26부터 당사 추정(점선)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에 높아진 수익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하지 않았다. 당사는 하반기 순매출 증가율을 상반기 순매출 증가율(1분기 +2.1%, 2분기 +3.3%)에 가까운 +3%로 두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폭이 1분기 +6.0%p에서 2분기 +3.1%p로 축소돼 온 경로를 연장해 3분기 6.9%(전년 4.9%), 4분기 6.6%(전년 4.5%)를 적용했다. 고마진 상품 편성과 판관비 절감에 따른 전년 대비 개선은 반영하되, 상반기 평균 9.8%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고는 가정하지 않은 것이다.

4Q25 순매출이 전년 대비 9.6% 감소한 기저를 감안하면 4분기 외형 회복은 추정치의 상방 요인이며, 2분기 이익률 8.3%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800억원대로 높아질 수 있다. 건기식·뷰티 판매 효율과 수수료 조건, 방송 관련 비용이 핵심 변수다.

홈쇼핑의 연간 증익 321억원은 연결 영업이익 증가분의 약 13%이며 할인점 증익 271억원의 약 1.2배다. 백화점 외에서 가장 큰 이익 증가를 담당하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이후 성장의 핵심은 개선된 상품 구성과 비용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당사는 영업이익이 2027년 842억원, 2028년 90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롯데온의 수익성 개선은 추가 기여 요인이다. 2분기 이커머스 영업손실은 74억원으로 10억원 축소됐고 상반기 손실은 132억원으로 38억원 줄었다. 패션·뷰티 집중과 광고 수익 확대, 온누리관 거래액 호조가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37억원으로 추정하며 연간 흑자 전환은 반영하지 않았다. 홈쇼핑의 이익 증가와 이커머스의 손실 축소가 병행되면 백화점 이익에 대한 다른 사업부의 상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실적리뷰

2Q26 Review: 일회성 228억을 안고도 영업이익 두 배

2Q26 연결 매출은 3조 4,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99억원으로 121.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4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마트·슈퍼 희망퇴직 비용 82억원과 컬처웍스 콘텐츠 재고손실 146억원 등 총 228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

표 55. 롯데쇼핑 2Q26 실적 요약 (억원)

구분	2Q26	전년 대비
연결 매출	34,850	+4.0%
영업이익	899	+121.2%
당기순이익	146	흑자전환
지배주주순이익	-28	적자 지속
국내 백화점 매출	8,556	+8.8%
국내 백화점 영업이익	1,123	+77.6%
국내 할인점 매출	9,789	+3.5%
국내 할인점 영업이익	-422	+58억원
홈쇼핑 매출	2,386	+3.3%
홈쇼핑 영업이익	199	+62.7%
하이마트 영업이익	10	-90.7%
컬처웍스 영업이익	-137	-

주: 일회성 비용 228억원(희망퇴직 82억원, 컬처웍스 콘텐츠 재고손실 146억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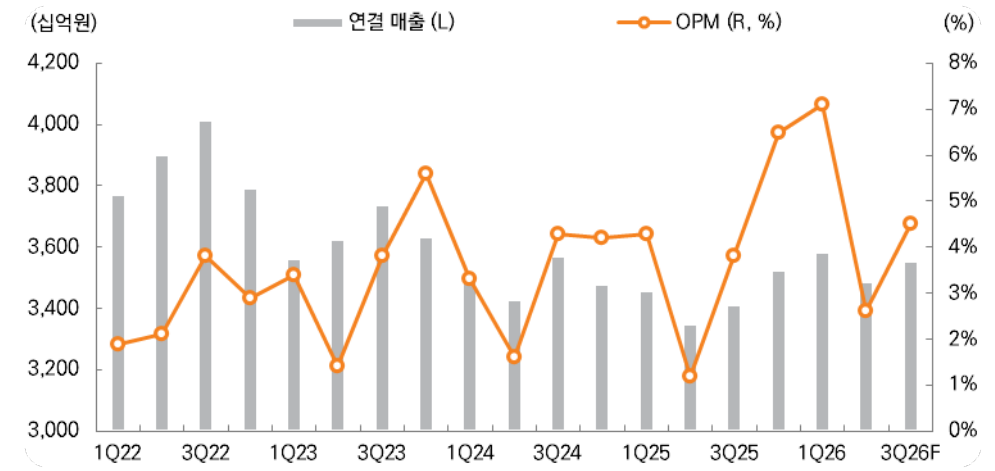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이 증익을 주도했다. 국내 백화점 매출은 8,556억원으로 8.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23억원으로 77.6% 늘었다. 기존점 매출은 15% 증가했다. 대형점과 외국인 매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본점 외국인 매출은 120% 증가해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했다. 해외 백화점도 매출 356억원(+20.6%), 영업이익 74억원(+309.7%)으로 개선됐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영업이익은 50억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할인점은 적자 폭이 줄었다. 국내 할인점 매출은 9,789억원으로 3.5%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42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억원 개선됐다. 마트·수퍼 합산 실적에는 희망퇴직 비용 82억원이 포함돼 있어, 일회성 비용의 사업별 배분을 확인한 뒤 정상 이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경쟁 완화와 시그니처 PB 개발이 매출을 밀어올렸다.

홈쇼핑도 매출 2,386억원(+3.3%)에 영업이익 199억원(+62.7%)으로,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등 고마진 상품 편성 확대가 시간당 효율을 끌어올렸다.

그림 120. 롯데쇼핑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반면 슈퍼는 희망퇴직과 시스템 투자 감가상각으로 영업손실 18억원을 냈고, 하이마트는 고마진 대형·생활가전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10억원(-90.7%)에 그쳤다. 전년 부가세 환급 효과를 제외하면 매출 +0.6%, 영업이익 -29억원 수준이다. 컬처웍스는 국내 영화 흥행으로 매출이 15.5% 늘었으나 콘텐츠 손실로 1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외손익은 -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 악화됐다. 순이자손익은 -1,114억원으로 18억원 개선됐지만 지분법손익이 404억원으로 81억원 감소했다. FRL코리아 관련 지분법 이익은 549억원으로 195억원 증가했으나 투티엠 복합개발사업의 손실 319억원 등이 이를 상쇄했다. 세전이익은 194억원, 연결 당기순이익은 14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나, 비지배 지분 귀속이 175억원에 달해 지배주주순이익은 2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Q26 프리뷰

3분기에는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과 할인점의 경쟁 완화가 연결 실적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백화점의 럭셔리·외국인 수요는 7월에도 견조했으며, 할인점은 경쟁사 영업 불안에 따른 수요 이전과 자체 상품 경쟁력, 추석 수요가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은 고마진 편성의 판매 효율이 유지되는지가 이익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당사는 3Q26 연결 영업이익을 1,594억원(+22.2%)으로 추정한다. 백화점 1,075억원(+29.2%), 할인점 141억원(영업이익률 1.0%, 전년 동기 115억원 대비 증익), 홈쇼핑 150억원을 반영했으며, 컬처웍스는 2분기 콘텐츠 재고손실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고 62억원, 하이마트는 대형가전 부진 지속을 반영해 95억원(전년 동기 190억원)으로 추정했다. 4Q26F는 백화점 성수기 효과로 2,871억원(+26.1%)을 전망한다. 할인점 이익률을 1% 안팎에 묶어 둔 것은 인도네시아 부진과 오카도 스마트센터 초기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표 56. 롯데쇼핑 3Q26F 사업부별 영업이익 전망 (억원)

구분	3Q26F	비고
연결 영업이익	1,594	+22.2%
백화점	1,075	+29.2%
할인점	141	영업이익률 1.0%, 전년 115
홈쇼핑	150	
컬처웍스	62	콘텐츠 재고손실 재발 없음 가정
하이마트	95	전년 190
(참고) 4Q26F 연결 영업이익	2,871	+26.1%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일시적 비용의 부담도 상반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본다. 회사는 2분기 컬처웍스에서 발생한 콘텐츠 재고손실과 유사한 비용이 하반기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희망퇴직은 지속될 수 있으나 상반기에 상당 부분 집행해 하반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오카도 스마트센터의 감가상각과 운영비가 새로 반영되는 만큼 비용 감소분 전체가 연결 증익으로 남는다고 가정하지 않았다.

기업 개요

롯데쇼핑은 백화점·할인점·슈퍼·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우리홈쇼핑, 롯데하이마트와 롯데컬처웍스를 연결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FRL코리아는 지분율 49%의 관계회사로 지분법손익에 반영된다. 우리홈쇼핑 지분율은 53.5%로, 연결 영업이익과 지배주주순이익에 대한 기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사업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백화점·할인점이 중심이다.

2026년 연결 매출은 약 14.3조원으로 예상되지만 백화점 매출 비중은 약 25%에 불과하다. 할인점이 약 40%, 하이마트가 16%, 슈퍼가 9%를 차지한다. 반면 영업이익 대부분은 백화점에서 발생한다. 매출과 이익 기여도의 괴리가 동사 사업구조의 특징이다.

상반기 국내외 백화점 순매출은 연결 매출의 약 25%였지만 영업이익은 3,109억원으로 연결 이익의 약 91%를 차지했다. 홈쇼핑의 이익이 개선됐음에도 국내 할인점, 이커머스 및 하이마트의 손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익 구조의 변화는 사업부별로 확인해야 한다. 백화점의 증익과 홈쇼핑의 수익성 개선을 중심에 두고 손실 사업부의 회복 속도를 차별적으로 반영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유통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로 다각화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동사는 백화점 약 10개점, 마트 약 20개점과 다수의 슈퍼·하이마트 점포를 정리하고 반복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리스크

백화점은 내국인 패션 소비와 외국인 유입이 동시에 둔화될 경우 이익 증가 폭이 축소될 수 있다. 원화 강세와 방한 수요 변화는 외국인의 구매 유인에 영향을 주며 핵심 점포의 매출 집중도도 높다. 현재의 이익 개선에는 기존점 성장에 따른 고정비 흡수 효과가 포함되어 있어 매출 둔화 시 이익 민감도를 확인해야 한다.

할인점은 이전된 고객의 정착 여부와 신규 운영비가 변수다. 경쟁 상권의 매출 증가가 일시적인 방문에 그치거나 추가 판촉비가 늘면 증분 매출의 이익 기여가 낮아질 수 있다. 홈플러스 잔여 점포의 재개장 이후 반사수해의 일부가 되돌려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 회복이 지연되거나 오키다 스마트센터의 가동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국내 실적 개선이 합산 이익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홈쇼핑은 고마진 상품의 판매 효율과 비용 통제가 하반기 전망의 핵심이다. 연간 771억원의 영업이익 추정은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p 개선(3분기 6.9%, 4분기 6.6%)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건기식·뷰티 편성 확대에도 판매가 부진하거나 수수료 조건과 방송 관련 비용이 불리해지면 하향 요인이 된다.

재무 측면에서는 큰 차입금 규모와 개발사업·손상차손의 변동성이 남아 있다. 상반기 순차입금은 증가했으며 순이자손익의 개선 폭도 제한적이었다. 연말 자산 손상과 투티엠 등 투자사업의 추가 비용은 지배주주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롯데쇼핑 (02353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3,738	14,323	14,827	15,268
매출원가	7,075	7,322	7,580	7,805
매출총이익	6,663	7,001	7,247	7,463
판매비와관리비	6,116	6,212	6,372	6,497
조정영업이익	547	789	875	966
영업이익	547	789	875	966
비영업손익	-464	-311	-301	-275
금융손익	-465	-420	-386	-386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164	139	124	124
세전계속사업손익	83	478	574	691
계속사업법인세비용	10	114	149	180
계속사업이익	74	365	425	511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74	365	425	511
지배주주	52	290	340	409
비지배주주	22	74	85	102
총포괄이익	-14	504	425	511
지배주주	-10	399	340	409
비지배주주	-4	105	85	102
EBITDA	1,603	1,894	1,958	2,020
FCF	1,072	1,075	965	1,016
EBITDA 마진율 (%)	11.7	13.2	13.2	13.2
영업이익률 (%)	4.0	5.5	5.9	6.3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0.4	2.0	2.3	2.7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5,195	5,866	5,993	6,168
현금 및 현금성자산	572	1,004	969	99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47	681	703	724
재고자산	1,458	1,534	1,585	1,631
기타유동자산	2,518	2,648	2,736	2,816
비유동자산	32,715	33,261	33,574	33,908
관계기업투자등	1,474	1,550	1,602	1,649
유형자산	24,063	24,359	24,666	24,974
무형자산	788	725	639	583
자산총계	37,910	39,127	39,567	40,076
유동부채	9,990	11,557	11,746	11,91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499	2,628	2,716	2,796
단기금융부채	5,352	6,679	6,705	6,729
기타유동부채	2,139	2,249	2,324	2,393
비유동부채	11,054	10,274	10,284	10,292
장기금융부채	8,500	7,643	7,643	7,643
기타비유동부채	2,554	2,632	2,641	2,650
부채총계	21,044	21,832	22,029	22,210
지배주주지분	15,185	15,467	15,677	15,956
자본금	141	141	141	141
자본잉여금	3,574	3,574	3,574	3,574
이익잉여금	7,441	7,598	7,808	8,087
비지배주주지분	1,681	1,829	1,861	1,910
자본총계	16,866	17,296	17,538	17,865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24	1,749	1,639	1,690
당기순이익	74	365	425	511
비현금수익비용가감	1,621	1,417	1,288	1,289
유형자산감가상각비	980	996	997	997
무형자산상각비	76	108	85	56
기타	565	312	205	235
영업활동으로 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46	51	76	6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32	-15	-15	-14
재고자산 감소(증가)	20	-72	-51	-4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0	26	21	19
법인세납부	-17	-84	-149	-18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1	-729	-461	-447
유형자산처분(취득)	-623	-660	-674	-674
무형자산감소(증가)	-46	-11	0	0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403	-154	-104	-95
기타투자활동	202	97	317	32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42	-642	-1,213	-1,216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956	467	26	24
자본의 증가(감소)	0	0	0	0
배당금의 지급	-195	-169	-183	-183
기타재무활동	-591	-940	-1,056	-1,056
현금의 증가	-983	432	-35	27
기초현금	1,555	572	1,004	969
기말현금	572	1,004	969	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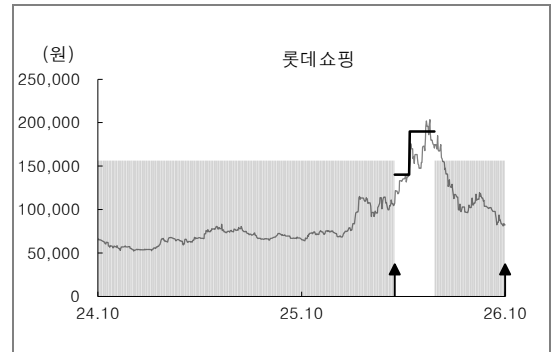
자료: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5	2026F	2027F	2028F
P/E (x)	39.8	8.0	6.8	5.7
P/CF (x)	1.2	1.3	1.4	1.3
P/B (x)	0.1	0.2	0.1	0.1
EV/EBITDA (x)	9.4	8.2	7.9	7.7
EPS (원)	1,822	10,262	12,017	14,454
CFPS (원)	59,905	62,981	60,548	63,638
BPS (원)	536,921	546,889	554,309	564,166
DPS (원)	4,000	4,600	4,600	4,600
배당성향 (%)	153.7	35.7	30.6	25.4
배당수익률 (%)	5.5	5.6	5.6	5.6
매출액증가율 (%)	-1.8	4.3	3.5	3.0
EBITDA증가율 (%)	0.9	18.1	3.4	3.2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15.6	44.3	10.9	10.4
EPS증가율 (%)	흑전	463.1	17.1	20.3
매출채권 회전율 (회)	27.1	31.7	31.5	31.4
재고자산 회전율 (회)	9.2	9.6	9.5	9.5
매입채무 회전율 (회)	11.8	12.0	11.9	11.9
ROA (%)	0.2	0.9	1.1	1.3
ROE (%)	0.3	1.9	2.2	2.6
ROIC (%)	2.1	2.6	2.5	2.7
부채비율 (%)	124.8	126.2	125.6	124.3
유동비율 (%)	52.0	50.8	51.0	51.8
순차입금/자기자본 (%)	67.6	65.6	64.7	63.1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0.9	1.6	2.1	2.3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롯데쇼핑 (023530)				
2026.10.30	매수	119,000	-	-
2026.06.26	분석 대상 제외		-	-
2026.05.12	매수	190,000	-9.52	7.11
2026.04.15	매수	140,000	-7.16	3.57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 2025년 5월 12일 기준으로 투자의견 분류기준 변경(Trading Buy 의견 삭제)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 20% 미만의 추가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금융투자분석사 재량에 따라 '매수' 또는 '중립' 의견으로 제시함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89.66%	0%	9.77%	0.57%

* 2026년 0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